

[사회]

광주학생운동 320개교 동참했다

시교육청 78년만에 확인...알려진 것보다 126개교 많아

지난 1929년 11월3일 광주학생 독립운동 당시 집단 시위나 휴교 등을 하며 항쟁에 동참한 학교 수가 애초 알려진 194개교보다 126개교 많은 320개교로 확인됐다.

광주시 교육청은 국민대 조동걸 명예교수 등 7명의 교수자문단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당시 항쟁에 참가한 국내·외 학교 수가 126개교가 더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교과서나 문서 등에서는 194개교, 5만4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소개됐었다.

자문단은 조선총독부 경무국 국비문서인 '조선의 치안 상황'(1930)과 '광주학생독립운동사' 등 각종 자료와 학교별 조사, 관련자 증언 등을 토

대로 이같이 결론지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가학교는 ▲전라지역(광주·전남·북) 41개교 ▲경안·함경도 117개교 ▲서울·경기 56개교 ▲충청 23개교 ▲경상도(부산·경남·북) 40개교 ▲강원·황해도 11개교 ▲중국 간도(間島) 32개교 등이다.

광주일고 전신(前身)인 광주고보나 여수 수산학교, 선린상업학교 등은 집단시위나 동맹휴교에 나섰고, 수피아여학교·육교보통학교·전지여자상업보통학교 등은 만세시위를 벌였다. 또 여수보통학교·전주공업보통학교 등은 격문(檄文)을 뿌리며 일제로부터 독립을 외쳤고, 제주농업학교와 평양실업학교 등은 시험 때 백지 답안을 제출했다.

합평농잠보습학교에서는 장날 시위 계획이 사전 발각돼 3명이 구속됐고, 배재고등보통학교는 열서를 통해, 협성실업학교는 집단 시가행진 등을 펼쳐 전국적인 학생독립운동 대열에 나섰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가교수를 새롭게 규명했기 때문에 교과서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세워져 있는 오석(烏石) 비문에 차범석 작가(2006년 작고)의 추모글과 독립운동 참가학교 명단을 전부 새겨넣기로 결정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짚어가는 단풍...몰려든 인파

광주·전남 휴일 유명산 행락객 붐벼

고속도로 극심 정체

11월의 첫 번째 휴일인 4일, 광주·전남 각 지방 축제 현장과 유명산에는 짚어가는 단풍과 축제 한마당을 즐기려는 행락객으로 붐볐다.

'백양 단풍 축제' 마지막날인 이날 장성 백양사에는 1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고운 빛깔을 뽐내는 '애기 단풍'을 보며 가을 정취를 즐겼다. 하지만 1만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호남고속도로 장성 분기점~백양사 하행선 13km 구간은 오후 늦게까지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였다.

'무등산 사람 범시민 축제'가

열린 무등산에는 4만5천여 명의 시민들이 중봉과 중머리재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절정에 달한 억새꽃과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영암 월출산과 담양 추월산, 순천 조계산, 화순 모후산 등 도내 유명산에도 많은 등산객이 찾았다.

'제1회 친환경 녹차마을, 소박한 차 꽃축제'가 개최된 보성군 회천면 영천마을 차밭 일대에는 1천여 명의 인파들이 몰렸으며, 해남 대흥사의 '제16회 초의 문화제'에 참여한 수많은 관광객들도 차(茶)를 마시며 초의선사의 다도 정신을 기렸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가을 밤하늘
흐린 후 밤부터 점차 개겠다.

광주	흐린 후 맑음	8~18℃
전남	흐린 후 맑음	9~17℃
전북	흐린 후 맑음	12~17℃
충청	흐린 후 맑음	10~17℃
경상	흐린 후 맑음	7~17℃
강원	흐린 후 맑음	9~18℃
제주	흐린 후 맑음	9~18℃
서울	흐린 후 맑음	7~18℃
부산	흐린 후 맑음	7~18℃
대구	흐린 후 맑음	10~17℃
인천	흐린 후 맑음	6~18℃
대전	흐린 후 맑음	4~18℃
울릉도	구름 많음	4~18℃
독도	구름 많음	12~15℃

11월 5일 (음 9월 26일) <전국날씨>

서울: 맑음, 부산: 맑음, 대구: 맑음, 대전: 맑음, 인천: 맑음, 광주: 맑음, 전주: 맑음, 목포: 맑음, 여수: 맑음, 제주: 맑음

▲해돋이 06:57 ▲해질 17:35 ▲달돋이 02:26 ▲달질 15:07

날짜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8/18	7/19	8/18	8/18	6/15	5/14



'제78회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인 지난 3일, 광주제일고에 세워진 학생운동기념탑을 참배하는 유공자·시민·학생·교육청 관계자 등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대학생 대선 참여 운동본부 발족

남총련 등 매니페스토 적극 추진

'광주·전남 대학생연합'(이하 광·전대련)과 '광주·전남 총학생회연합'(이하 남총련) 회원 100여 명은 지난 3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 '2007 대선 참여 광주·전남 대학생 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매니페스토(Manifesto·참 공약 선택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대학 사회가 직면한 청년실업과 교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내달 19일까지 대선 후보 공약을 분석·평가한 뒤, 학생들과 함께 지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남총련 등은 또 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학생 수 1만 명 미만의 규모가 작은 대학들을 모아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매니페스토(Manifesto)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 순위' '기간' '공정' '예산' 등의 사항을 수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해 검증과 평가를 쉽게 하자는 운동.

모색키로 했다. 광·전대련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정책 선거·깨끗한 선거로 만드는 데 대학생들이 직접 나설 것"이라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철도노조 12일 총파업 잠정 결의

수능 수송대책 비상

철도노조가 오는 12일 총파업을 잠정 결의하면서 수송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12일 오전 4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15일 간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직권중재를 내린 상태에서 이 기간에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코레일(철도공사)은 이날 노조의 총 파업에 대비,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확보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부당한 요구를 내세워 파업을 강행할 경우 '수험생을 불모로 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8월부터 ▲해고자 복직 및 원상회복 ▲전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새끼 반달곰 4마리

지리산 추가 방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달 24일 러시아 연해주에서 들여온 새끼 반달곰 6마리 중 수컷 1마리와 암컷 3마리 등 4마리를 지난 1일 지리산국립공원 동부지역에 방사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본래 6마리 모두를 방사하려 했으나 질병진단연구소의 최종 검진결과 2마리가 기생충에 감염된 사실이 발견돼 격리조치 후 구충과정을 거친 뒤 방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립의 과목별 산발인원은 국어 19명(♂ 2명), 수학 15명(♀ 1명), 영어

중등교사 내년 188명 모집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선정 경쟁 시험 시행 계획이 4일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18과목 188명으로 공립 18과목, 187명(장애인 10명 포함), 사립 1과목 1명이다. 공립의 과목별 산발인원은 국어 19명(♂ 2명), 수학 15명(♀ 1명), 영어

15명(♀ 1명), 화학 9명(♂ 1명), 생물 6명, 역사 5명 등이다. 또 체육 18명, 음악 5명, 미술 5명, 중국어 5명, 기술 5명, 전기·전자·통신 10명(♂ 1명), 화공·섬유 5명, 특수 21명(♂ 1명), 사서 9명(♀ 1명), 보건 27명(♀ 2명), 영양 6명, 전문상담교사 2명 등이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5~9일 도교육청 민원실, 1차 시험은 다음달 2일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교통사고 없는 세상 만들자

광주일보·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 공동 캠페인

났다면 대형...전남 지난해 34명 숨져

⑥ 고속도로 사고 줄어야

지난해 전남지역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161건으로 전년(149건)에 비해 8.1% 늘었다. 고속도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져 지난해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136건(85%) ▲안전거리 미확보 13건(8%) ▲중앙선 침범 3건(2%) 순이지만 대부분 사고는 과속과 무리한 추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지역 모든 도로에서 두 번째로 교통사고가 많이 난 곳은 순천시 주암면 호남고속도로 상하행선. 모두 31건, 60명의 사상자를 냈다. 또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88고속도로도 지난 10년간 44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0월에 1.2명꼴이다.

88고속도로의 경우 노선별 치사율도 100건당 사망 32명으로 ▲구마고속도로 18.9명 ▲남해 12.2명 ▲경부 9.9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중 59.6%가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였다. /오광록기자 kroh@

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구간(154km)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고, 이중 15%인 34개소(23km)가 커브 구간이기 때문이다.

과속과 무리한 추월에 의한 사고가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난해 배기관이 같은 동일 모델의 자동차 두 대를 서울~부산까지 과속·정상운행 비교 실험한 결과 ▲시속 100km로 달린 운전자는 추월 15회·차로 변경 30회 ▲160km의 과속 차 운전자는 추월 37회·차로 변경 235회를 했다. 속도를 내다보니 앞차를 추월하는 경우가 많고, 잦은 차로변경이 이뤄진 것이다.

한국도로안전관리공단 이기형 교수는 "광주~서울을 160km로 달리는 차량과 100km대의 규정 속도를 지닌 차량의 운행시간은 고작 30여 분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정 속도를 지켜 위험하게 추월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컴퓨터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영세자영업자	기업사무자동화 인력양성과정	3개월	11월 1일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1월 5일
	GAD	2개월	11월 1일
	MOS(Master)	2개월	11월 5일
	정보통신실비	2개월	11월 1일
정보처리	2개월	매월 초	
정보화 기초 1,2	5주	매월 초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11월 12일
	주택관리사	2개월	11월 12일

※ 교육대상 : ■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 일반인 및 대학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6개월 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 야간반, 주말반)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08년 국가·지방직 합격 대비는 지금부터가 좋습니다 =

7급 공무원

합격특강

강좌안내

행정직, 교서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자직, 지공직, 토목직, 건설직, 물리화학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 11월 1일 주·야 (종합)반 모집 (전직종류에서적합한 학시제와합선수용)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공무원 5만명 증원(2007년부터 2010년까지) =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7급 공무원 개강 11월

개강특강

개강특강 : 행정직, 교서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자직, 지공직, 토목직, 건설직, 물리화학

공무원 이론반 2개월 완성 (9월 11일 ~ 11월 11일)

공무원 문제풀이 1개월 완성 (10월 11일 ~ 11월 11일)

2008년 지방직 공무원 시험 대비

이론반(2개월 완성) 문제풀이(1개월 완성)

기술직 단과반 : 농업직, 토목직, 건설직, 소방직, 전자직, 지공직

한빛공무원학원

www.hanbitgosi.co.kr

관미 후문 부구청 건너 ☎234-0234

발명특허 제0526760호 - 체내 니코틴 분해효과와 다이옥신 독성감소의 생약재 추출조성물

담배뚫! 독소안녕~

생약재 추출물 신물질 성공관대학교 기능성식품공학연구원 개발 옥타코사를 관련 KBS, MBC, YTN, TV뉴스 및 각언론 집중보도

제품구성 : 360정x2병(720정) 특별가 : 298,000원

D7 조선일보 제26776호 2007년 1월 24일 수요일

성공관대 식품생명공학과 박기훈·송서진 교수팀은 체내에 쌓여 있는 니코틴, 다이옥신, 수은 등 독소를 배출시키는 생약추출물(OX-348)을 개발했다. 해독 및 항염증 효과가 있는 삼백초, 인동, 민들레, 결명자, 감초 등 8종의 한약재에서 생약성분을 추출, 국내 특허를 받았다. 조선일보 기자 박영

3일 섭취후 변화를 직접 확인 가능

옥타코린의 주원료인 생약물질 추출물은 3일 이후면 체내 니코틴이 분해되어 대, 소변으로 배출되면 소변색깔이 탁하고 양이 많아지며 피로감이 없어지며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3일정도 지나면 평소보다 많은 양의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을 느끼는데 니코틴이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도 니코틴부족으로 더 많은 양의 흡연욕구를 느끼지만 보름 정도 지나면 소변색깔도 정상으로 맑아지며 담배맛이 없어 흡연욕구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의학력 부족으로 2개월이 지나도 금연을 하지 못하는 분은 계속 드시게 되면 3개월이 지나면 체내에 있는 니코틴이 모두 배출되어 담배를 피워도 몸 자체에서 거부 반응으로 기침과 구토등으로 처음 담배를 배울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금연에 성공 할 수 있다고 한다. 환경호르몬, 공해물질, 황사로 인하여 걱정만 하지 말고 중금속과 니코틴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면 민사가 편안하고 합친 생활을 할것이라고 학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2008.1.은곡 금연에 성공하고 국민 모두가 한층 더 건강하십시오

제조원 : 품담무역 판매원 : (주)성공관바이오 테크놀로지

문의 : 02)541-0504, 541-0949

농림 175388-56-08774(김정애)